■ 조선업 불황 속 고공 성장하는 영암 '디에스중공업'

"블록 4개면 배 한척…대형화로 승부했죠"

디에스중공업의 핵심시설인 육상 최대 500t 규모의 골리앗크레인이 대형블록 작업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700억원 시설투자…1700t급 대형블록 생산

올 매출 600억…주문폭주 내년 물량까지 확보

"조선의 대형화 추세에 맞게 블록도 대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 대형블록을 생산하게 됐고, 그게 주효한 거죠."

글로벌 금융 위기로 조선산업이 불황의 늪에 빠진 가운데 매년 200% 이상 급성장하는 부품업체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영암 대불산단 내 선박블록 전문기업인 '디에스중공업'.

김성길 대표는 6일 "대형조선사의 입맛에 맞춰 대형블록 생산 전략을 세우고 시설투자를 했다"며 "경쟁사들은 개당 수십t짜리 소형블록을 만들지만 디에스중공업은 1500~1700t짜리 블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에스중공업은 지난 2007년 8월 설립됐다. 대불산단 내 블록업체로선 후발주자다. 하지만 4년 만에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 배경엔 '대형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감한 시설투자를 했다. 13만2000㎡의 부지에 약 700억원을 투자해 블록 제작동과 도장공장을 세웠다. 최근엔 '블록-도장-조립'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도록 육상에선 가장 큰 규모의 500t 골리앗크레인을 건설했다.

덕분에 1500~1700t 규모의 대형블록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한 척의 배를 만들려면 최소 30개가 넘는 블록을 이어붙여야 하는데 이 회사는 대형블록으로 4개만 연결하면 된다. 대형조선소에서의 조립과정을 대폭 줄여 준 것으로, 대량수주의 원동력이 됐다. 물량 주문이 폭주하면서 이미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물량까지 확보된 상태다.

납기 지연의 원인이던 도장공정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140억원을 투자해 환기시설과 건조 장비를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장공장을 세웠다. 그동안 옥외에서 이뤄지던 도장공정이 옥내로 옮겨지면서 비·눈 등 날씨의 제약이 없어져 경쟁사들보다 납기를 10%이상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력도 한 몫 했다. 디에스중공업의 모기업인 대성중공업은 국내 최초로 '턴 오버 크레인'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블록 철판 용접 시 블록을 들어올린 뒤 공중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디에스중공업은 '블록-도장-조립'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췄다. 이는 매출로 이어졌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370억원에 달했고, 올핸 65% 신장한 6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kwangju.co.kr

김성길 대표

"골리앗 크레인으로 고객에 기술력 각인"

디에스중공업의 성장에는 김성길 대표의 독특한 경영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몰입경영', '자숙경영', '감동경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고객이 직접 기술력을 확인하는 것만큼 확실한 마케팅은 없다"며 "고객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장시설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500t 규모의 골리앗크레인도 '몰입경영'의 산물이다. 모기업인 대성중공업이 만든 이 골리앗크레인을 본 고객이 수백억원대의 크레인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자숙경영'은 초심을 잃지 말자는 뜻이다.

김 대표는 1994년 처가에서 650만원을 빌려 대성산업을 창업, 혼자서 크레인을 만들었다. 자본금이 없어 무허가 부지에 공장을 세웠고, 쫓겨나는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를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그의 사무실엔 당시 사진이 걸려있다.

김 대표는 '감동경영'도 강조했다.

디에스중공업의 주요 고객은 STX, 현대중공업 등 대형조선사다. 이들 모두 경상도에 위치해 있다. 김 대표는 "물류비를 감수하면서 영암까지 찾아오는 이유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근화건설, 중대형 '베아체비올레'

내달 남악신도시에 397가구분양

근화건설(회장 김호남)이 서남권 최고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무안 남악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 '근화 베아채비올레'를 다음달 선보인다. 〈조감도〉

근화건설은 5일 전남도청이 소재한 남악신도시에 7년만에 공급되는 중대형 아파트 '근화 베아체비올레' 397가구를 분양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5~18층 7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 84㎡(34평) 181가구, 105㎡(41평) 84가구, 122㎡(44평) 132가구 등 총 397가구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 3월 성공리에 분양한 근화건설의 '베아채 스위트' 아파트 옆에 있다. 베아채 스위트는 최고 청약경쟁률 13대 1을 기록하며 지방도시에서 청약 돌풍을 일으켰다.

이는 영산강이 바라보이는 탁 트인 조망권과 교육·교통·편의시설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청 이전 이후 전남도교육청, 전남개발공사, 전남지방경찰청, 농협 전남지역본부 등의 이전 등 개발호재도 한 몫하고 있다.

목포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남악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 등 풍부한 개발 호재와 입지에 따른 가격 경쟁력 등이 분양성공 요인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근화건설 관계자도 "근화 베아채 비올레는 목포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남악신도시에 공급되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아파트"라며 "7년만에 남악신도시에 들어서는 중대형 아파트라는 점과 계약금만으로도 2년 후 입주할 수 있어 재테크 가치도 높다"고 말했다. 분양 문의 061-287-7878.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담배인삼공사, '에쎄멘솔 1㎎' 출시

천연 멘솔을 사용해 청량감이 뛰어난 초슬림 멘솔담배 '에쎄멘솔 1㎎'(ESSE Menthol)이 출시됐다.

신제품에 사용된 '멘사 파이페리타'(Mentha Piperita)는 멘솔 정제 과정에서 극소량만 추출되는 고급 천연 멘솔로 일반적인 멘솔제품에 적용된 멘솔향보다 청량감과 향 발현이 뛰어나다. 또 에쎄멘솔 1㎎은 멘솔 함유량을 높여 저타르이면서도 동시에 진한 천연의 멘솔향을 구현했다.

이창우 KT&G 브랜드부장은 "에쎄멘솔 1㎎은 강한 멘솔향의 초슬림 담배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한 담배"라며 "에쎄 특유의 깔끔한 맛과 천연 프리미엄 멘솔향의 업그레이드된 청량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에쎄멘솔 1㎎은 타르 1.0㎎, 니코틴 0.1㎎으로 갑당 2500원이며 초슬림 담배 판매율이 높은 광주·전남북과 부산·대구 등 남부지역에서 먼저 시판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